

© Lynn A. Struve ed., *The Qing Formation in World-Historical Time*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 Ch.5. *The Qing Formation and the Early-Modern Period* (by Evelyn S. Rawski)

Early Modernities?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에서 영토국가들이 자원의 동원 및 집합적 아이덴티티의 주요 동력으로 등장한 시기. 제국이나 도시 국가들 같은 낡은 정치체가 민족 왕조 내지 민족 국가 및 대륙의 공화국으로 교체된 시기.” (209)

필자는 early modern 프레임워크에 대해 일정한 유보(청 제국의 형성과정에서 유럽과 비견될 만한 early modern의 물질적 징후들이 발견되지만 중국에서 modern mentalité는 20세기가 되어야 출현한다,는 입장. 뒤에서 Janathan Hay는 이에 대해 enlightenment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early modern식 접근의 한계를 지적한다; 304)를 표명하면서도,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청이 유럽의 early modern적 특징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첫째, 경제 성장. 둘째, 조세수입 증가. 셋째, 행정의 중앙집중. (명과 달리 황제권 강화. 새로 복속된 비한인 지역 번국 문제는 내번원 및 팔기군 출신자들에게 전담시킴. 다만, 출신성분의 궁극적 기준은 혈통이 아니었음. 칭제건칭하기 전에 청에 투항한 비만주족 포함)

청은 건륭제 때까지 내륙 및 중앙 아시아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재정적·정치적 능력을 보여주며,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인구, 언어, 자연, 습속에 관한 정보를 전략적으로 수집·편찬한다. 1782년 무렵에는, 만주어, 몽고어, 티벳어, 위구르어, 한어를 아우르는 번역사전이 완간된다. Rawski는 중국 역대왕조 중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한 건륭제 연간의 청에 대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cosmopolitan한 universal monarch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몽골이나 티벳 지역까지 한어 번역서가 침투하면서 오히려 내셔널 아이덴티티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주장도 말미에 살짝) 따라서, 제국 건설을 향한 청의 노력은 이전의 명 왕조나 원 제국의 답습이 아니라, ‘새로운 종합(a new synthesis)’이었다는 것. 그것은 보편 제국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비유교적이었고, 예수회 선교사들이 들여온 수학, 천문학, 지도제작법(227) 등 새로운 개념과 기술을 이용한 ‘a stable multiethnic empire’의 성공적 사례였다.

● Ch.6. *Neither Late Imperial nor Early Modern: Efflorescences and the Qing Formation in World History* (by Jack A. Goldstone)

세계사적 경향을 표현하는 네 가지 말. 성장(growth), 침체(stagnation), 안정성(stability), 위기(crisis). 기존 근대화론에서는 성장 개념을 둘로 나누어, 단순한 인구와 영토의 증대로 인한 양적 성장과, 기술혁신 등 1인당 생산성 자체가 증가하는 슈페터적 성장 가운데 후자만을 근대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유럽 대 비유럽(그리고 그 대표로서의 아시아, 중국), 근대 유럽의 성장 대 안정성/ 정체, 진보를 염두에 둔 단선적 시간 대 중국 왕조의 순환적 시간, 봉건주의 대 자본주의 등의 이분법은 해체되어야 한다. 특히,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이라는 양대사건이 역사의 진보와 계급체제의 붕괴를 표상하며, 이것이 근대 일반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생각 자체가 비역사적이다.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 훨씬 이전인 1000년 내지 1300년부터 1800년까지 이미 유럽 곳곳에서는 봉건주의를 벗어나는 사회·경제적 동향이 목격된다. early modern의 또다른 지표인 농업기술혁신과 1인당 생산량 증가, 도시를 축으로 하는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상업 네트워크, 상인계급의 출현, 중앙집중화되고 관료화된 정치 체제 등도 18세기 이전의 유럽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오토만 제국 등 세계적으로 발견된다.

따라서 이런 식의 시대구분이 보다 적실하다. ancient(BC 3500-500), classical(BC 500-AD 500), medieval(AD 500-1350), late premodern(1350-1900), modern(1900-) early modern을 영국식 산업화와 연결시켜 일반화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목적론적 진보 개념을 배후에 깔고 있는 early modern 프레임워크 자체에 반대. 역사적 contingency에 보다 민감해질 것. 국민 국가의 등장 또한 19세기에 전지구적으로 일어났던 현상. early modern Europe을 해체해 보면, 19세기 이전에 early modern한 국민국가적 모습을 갖추고 있던 나라는 프랑스와 포르투갈 뿐이었고, 궁정 문화가 일반 문화와 철저히 유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는 프랑스도 아웃. 포르투갈 또한 브라질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음을 기억하자.

이상, Goldstone은 근대의 핵심적 속성을 '(경제적) 성장'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청나라의 세계사적 단계를 late premodern 시기의 '흥성기(efflorescence↔crisis)'로 개념화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흥성기'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공통적인 현상임을 증명하는 사례로서, Golden-Age Holland(1570-1670), High Middle Ages in northwest Europe(1150-1250), England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1730-1830)가 모두 청나라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그렇다면, 왜 청이 물질적 발전에도 불구하고(혹은 1750년 이후에는 그 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근대화되지 못했는가? 가 아니라, 왜 영국은 전근대적 흥성기에서 맬더스적 침체의 덩어리에서 탈출하여 근대화를 이룩했는가? 이다. 영국이 오히려 특수한 사례라는 것. Goldstone의 대답은 영국의 지성사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engine science'(284)가 발달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증기기관을 발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advanced premodern"으로 요약될 법한 Goldstone의 입장 또한 뒤에 Hay에게는 여전히 모종의 단선적 진보사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된다.(305)

※ 참고자료

건주 여진(建州 女眞) (1405년 ~ 1616년)
 후금(後金, 1616년 ~ 1636년) (천명/ 천총)
 청(淸, 1636년 ~ 1912년) (승덕/ 순치/ 강희/ 옹정/ 건륭/ 가경/ 도광/ 함풍/ 동치/ 광서/ 선통)

전성기 3명의 황제
 ° 성조=강희제 (1662~1722)
 ° 세조=옹정제 (1722~1735)
 ° 고종=건륭제 (1735~1795)

[중앙관제]

1629년 태조 때 문관(文館)이 설치되어 한문 번역 및 국사(國事) 기록을 담당하였고, 36년 태종 때 내국사원·내비서원·내홍문원의 내삼원(內三院)으로 되어 각 대학사를 두었으나 모두 황제 직속 서기실에 불과하였다. 58년 내삼원은 다시 명제(明制)의 내각으로 개편되고 전각대학사(殿閣大學士)와 협판대학사(協辦大學士)를 두었다. 또 별도의 최고 정무기관으로서 태종 때부터 의정왕대신(議政王大臣)이 있어 44년 입관(入關) 후에도 군사를 비롯하여 주요 국무 심의를 맡았다. 그러나 세종 때(1723~35) 군기처(軍機處)가 신설되자 실권은 이곳으로 옮겨졌으며, 건륭 초기에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군사·국무의 최고 권한을 겸하였다. 정무집행기관은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 등 6부와 대리시(大理寺) 이하의 5시(寺), 감찰기관인 도찰원(都察院), 그 밖에 한림원(翰林院)·국자감(國子監), 흠천감(欽天監) 등 명나라 제도를 답습하였다. 만주인 관계를 다루는 종인부(宗人府), 내무부와 번부(藩部)의 일을 다루는 이번원(理藩院) 등을 제외한 중앙관청의 장관은 모두 만주족과 한족을 고루 기용하였다. 그 밖에 전결(專缺; 어떤 특정한 신분에 한하여 관직을 주는 것)제도도 있었다. 청나라 말기에 이르러 외교가 중요해지자 1861년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이 설치되었고, 의화단 사건 뒤인 1901년 외무부로 개정되었다. 1906년 입헌 준비와 함께 기구를 크게 개혁하여 11부 2원제를 시행하였다. 1908년에는 자정원(資政院)이 개설되었고, 11년에는 내각과 군기처가 폐지되고 책임내각제가 시행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1905년 수(隋)·당(唐)나라 이래 시행해 오던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학교출신들이 임용되기 시작하였다.

[세제·재정]

세제는 명나라 말기 일조편법(一條鞭法)을 계승하였으며, 성조 말년에 성세자생인정(盛世滋生人丁)의 재정이 실시되어 정액(丁額; 人頭稅額) 전체가 고정됨으로써 인두세를 토지세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세종 때 지정은제(地丁銀制)로 되었는데, 이같은 세법의 대개혁으로 오랫동안 중국에서 시행해 오던 세(稅)와 요역이라는 2가지 국가세입이 조세 하나로 통합되었다. 세제와 관련된 제도에 촌락·향촌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명나라 이래의 이갑제(里甲制)가 지방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계승된 것이다. 강남의 장쑤성[江蘇省(강소성)]·저장성[浙江省(절강성)]에서는 명나라 말기 이래 균전법·균역법이 시행되었으며, 세종 이후 순장편리(順莊編里)로 되었다. 지정은이 세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종 때에 거의 70%에 달하였으며, 그 다음가는 주요 세입인 염과(鹽課)와 관세가 점차 증가하였다. 특히 청나라 말기에는 5개 항 개항 후의 해관세(海關稅)와 태평천국운동 진압을 위한 준비로 신설된 이금(釐金) 등 국내외의 관세 증설이 있었다.

[연표]

- 1583 누르하치 거병
- 1613 누르하치, 대부분의 여진부족 통일
- 1615 팔기제도(八旗制度) 확립
- 1619 사르후 싸움. 누르하치, 명군 격파
- 1627 조선 침입(丁卯胡亂)
- 1635 차하르부(部)를 쳐서 내몽골 평정
- 1636 국호를 청(淸)이라 고침. 조선을 복속시킴(丙子胡亂)
- 1638 6부(部)·이번원(理藩院)·도찰원(都察院) 설치
- 1644 이자성(李自成), 베이징[北京]에 들어가 명을 멸함. 청군, 베이징으로 천도.
- 1645 청, 난징[南京] 공략. 변발 강요
- 1659 윈난[雲南]을 평정, 중국 통일 거의 완성
- 1661 성조 즉위. 정성공(鄭成功), 타이완[臺灣]에 웅거
- 1662 균전균역법(均田均役法) 시행
- 1673 오삼계(吳三桂) 등의 삼번의 난(三藩-亂, ~81)
- 1683 정씨(鄭氏) 항복, 타이완이 청 영토로 됨
- 1689 러시아와 네르친스크조약 체결
- 1690 최초의 《대청회전》 완성(이후 4종)
- 1717 광둥[廣東]에서 지정은(地丁銀) 시행. 이후 각 성에 미침
- 1720 광둥에서 처음 공행(公行)을 결성
- 1723 그리스도교 엄금(이후 금지령이 자주 나옴)
- 1725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 완성
- 1732 군기처(軍機處) 설치

- 1735 고종 즉위
- 1743 《대청일통지(大清一統志)》 완성
- 1757 외국무역을 광둥항에만 한정
- 1782 《사고전서(四庫全書)》 완성
- 1793 영국사절 G. 매카트니, 베이징에 옴
- 1796 백련교도(白蓮教徒)의 난 일어남(~1801)
- 1809 광둥의 호시장정(互市章程) 정해짐
- 1813 천리교도(天理教徒)의 난 일어남
- 1839 임칙서(林則徐), 영국함의 아편 소각
- 1840 아편전쟁 일어남
- 1853 태평천국, 난징을 도읍으로 정함. 중국번(曾國藩), 상군(湘軍)을 조직. 처음으로 이금세(釐金稅) 징수
- 1856 애로호사건 일어남
- 1858 러시아와 아이훈조약(愛琿條約) 체결. 영국·프랑스와 텐진조약[天津條約] 체결
- 1860 영국·프랑스군 베이징 점령. 베이징조약 체결로 영국에 주룽[九龍] 할양, 텐진 개항, 러시아에 연해주 할양
- 1861 총리각국사무아문을 설치. 목종 즉위. 서태후(西太后)·공친왕(恭親王) 등 실권 획득. 양무운동(洋務運動) 일어남
- 1862 워드, 상승군(常勝軍) 조직, 다음해 영국인 고든이 지휘. 이홍장(李鴻章), 회용(淮勇)을 조직
- 1864 홍수전(洪秀全)·이수성(李秀成)이 죽고, 태평천국 멸망
- 1865 상하이[上海]에 강남제조총국(江南製造總局)을 둔
- 1866 야쿠브베크, 신장[新疆]에서 독립
- 1867 좌종당(左宗棠), 신장의 동란 진압 개시(~78). 마미(馬尾)에 북주선정국(福州船政局)을 둔
- 1868 염군(捻軍)을 멸함
- 1870 민중, 텐진의 프랑스영사관·교회 습격
- 1871 러시아, 이리[伊犁]지방 점령. 청·일통상텐진조약[淸日通商天津條約] 체결
- 1873 목종, 친정(親政) 시작
- 1876 상하이~우쑹[吳淞] 간에 최초 철도 개통. 영국과 즈푸조약 체결
- 1880 이홍장, 해군 창설. 텐진전보총국 설치
- 1881 러시아와 이리조약 체결
- 1882 상하이 기기직포국(機器織布局) 설치
- 1884 신장을 성(省)으로 함. 청·프전쟁 일어남(~85)
- 1888 이홍장, 북양해군(北洋海軍) 창설
- 1891 가로회(哥老會), 폭동 일으킴
- 1894 청·일전쟁 일어남. 쑨원[孫文], 흥중회(興中會) 결성
- 1895 시모노세키조약[下關條約] 체결. 쑨원, 광저우[廣州] 혁명에 실패
- 1896 러시아와 동청철도밀약(東淸鐵道密約) 체결
- 1898 독일이 자오저우만[膠州灣], 러시아가 뤼순[旅順]·다렌[大連]을 조차(租借). 일본과 푸젠성[福建省] 불할양 협정. 프랑스와 윈난·광시[廣西] 불할양 협정. 영국, 구룡반도·웨이하이웨이[威海衛] 조차. 강유웨이[康有爲] 등, 변법(變法) 시행(戊戌政變)
- 1899 미국, 문호개방 선언. 프랑스, 광저우만 조차. 의화단의 공격이 활발해짐
- 1900 의화단, 베이징 입성. 쑨원, 광둥봉기 실패
- 1901 베이징의정서(辛丑條約) 조인. 러시아, 동청철도 완성
- 1902 러시아와 동삼성(東三省) 환부조약 체결
- 1903 황싱[黃興] 등, 화흥회(華興會) 결성
- 1905 쑨원, 중국혁명동맹회 결성. 과거제 폐지
- 1906 일본, 남만주철도회사 설립. 입헌제 준비의 상유(上諭)가 나옴. 관제대개혁
- 1907 중국혁명동맹회, 전난[鎮南] 봉기 실패
- 1908 헌법대강(憲法大綱)의원선거요강 공포
- 1910 신군(新軍), 광둥에서 봉기 기도. 베이징에 자정원(資政院) 설치. 영·미·프·독 4개국 차관단 성립
- 1911 황싱 등의 광저우 봉기 실패. 철도국유령 공포. 쓰촨에 폭동 일어남. 우창[武昌] 봉기. 신해혁명(辛亥革命) 일어남. 위안스카이[袁世凱]내각 성립
- 1912 중화민국 성립. 쑨원, 임시 대통령이 됨. 푸이[溥儀] 퇴위, 청나라 멸망. 태양력 채용